

西厓 柳成龍의 樓亭詩 研究

李 貞 和*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西厓의 詩 認識
- III. 樓亭詩의 詩 世界
 - 1. 忠臣의 憂國 意志
 - 2. 人生에의 達觀과 枯淡한 詩境
 - 3. 삶의 實存的 認識과 孤獨境
- IV. 맺는 말

【요 약】

첫째, 누정시의 제작에 있어서 정신적 토대가 된 서애의 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애는 孔子의 시관에 입각하여 詩作에 있어서도 效用的 詩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詩敎說」에서, 시공부에 있어서도 爲己之學과 같은 마음의 수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애는 유가적 시정신이 갖든 의취의 본질을 ‘맛없는 가운데 느껴지는 지극한 맛’에 비유하였다. 서애는 古人들이 도연명과 위응물을 시의 대가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아왔던 이유에 대해 여느 시인들과 달리 이 두 시인의 시에는 의취의 높은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둘째, 서애의 누정시는 산수자연에 대한 흥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숙명여자대학교 시간강사

그가 산수자연을 통해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의 누정시에서는 충신의 우국 의지가 표출되어 있다. 「宿淸風寒碧樓」시에서는 임금을 향해 눈물 흘리는 신하의 충성심을 담았다. 「宿娑娑城 登襟江樓」시에 나타난 그의 우뚝한 기상은 왜적의 邪氣가 민족정기를 결코 훼손할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며, 이를 통해 나라를 생각하는 그의 우국정신을 다시금 헤아릴 수 있게 한다. 위의 시에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주변경관은 단지 시인의 그러한 의취를 가다듬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過彈琴臺有感 次朴昌世先生韻」에서, 시의 배경으로 자리한 승경지 탄금대도 역시 시인의 우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장소로서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陪使相 登百祥樓少憩 發向嘉山」은 山紫水明한 疆土이기에 더욱 더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절감한 데서 우러나온 시이다.

그리고, 그의 누정시는 인생의 달관과 枯淡한 詩境을 표출하고 있다. 「題西樓」시에 나타난 서애의 마음은 세속을 초연한 陶淵明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 부귀에 매달려 과욕으로 인한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三旬九食하는 빈궁한 처지라도 본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安分知足의 뜻을 되새기고 있다. 「遠志精舍記花」시 역시 그의 산수생활이 바로 자연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는 安貧樂道의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였다. 또, 「靜觀齋春日有感」시를 통해 정관헌을 둘러싸고 있는 버드나무를 관조하면서 이를 통해 체득된 도의 본체를 物心一如의 경지로써 표출하였다. 이밖에도, 「燕坐樓秋思」시는 “蒼壁”으로 형상화된 그의 내면세계가 외부세계의 깊은 강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주역」의 이치는 目前의 水深과 같이 심오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시적 성향은 자기 속에 내재하는 理를 통해서 자연의 理를 바라본 퇴계의 시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끝으로, 서애의 누정시는 삶의 實存的 認識과 孤獨境을 담고 있다. 「題花石亭」시에서 서애는 白居易 시를 전고로 하였는데, 이는 知天命

의 年齒를 앞두고 타계한 율곡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또, 「遊洗心臺遇雨」는 위응물 시에서 그 의상을 따온 것으로, 山中客의 쓸쓸한 심경을 비바람 부는 빈산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早春自遠志精舍步出江沙偶得」시는 도연명의 시정신과 그 의상이 상통하는데, 인간의 宿命이란 지는 꽃잎 같이 一時의 盛時만이 있음을 일깨운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에는 일찍이 「遠志精舍記」에서, “도연명의 시에, 마음이 세속과 멀리하니 사는 것이 절로 한가롭다 하였으니, 이 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취향을 함께 할 수 있으리요. 이로 인하여 기문을 짓는다.”라고 하였으니, 도연명의 山林高義를 존모한 서애의 시정신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서애 유성룡(1542-1607)에 대한 학계의 연구성과는 대체로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위기에 처해 經世濟民하였던 정치가로서의 위상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에 서애의 시문학에 대해 그 전반적인 경향을 다룬 연구물이 나온 바, 강성준의 박사학위논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1) 戰亂詩 2) 說理詩 3) 詠史懷古詩 4) 思鄉詩 5) 田園詩로 서애시를 분석하였다.¹⁾ 또, 서애시의 시적 특질에 대해 1) 吟詠性情의 面貌 2) 人間的 苦惱의 表出 3) 自然觀照的 興趣 4) 隱人 脫俗으로의 希求로 설명한 조민경의 석사학위논문이 2005년에 발표되었다.²⁾ 이보다 앞선 시기에 서애의 문학과 시세계를 연관지어 분석한 연구물이 김시황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³⁾

1) 강성준, 『西厓 柳成龍의 詩文學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2) 조민경, 『西厓 柳成龍의 詩文學 研究』,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3) 김시황, 「서애 유성룡의 문학세계」,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서애는 스승인 퇴계와 마찬가지로 산수에서 講學하였으며, 이 때 학문의 공간으로 사용된 누정에서는 作詩를 통한 빈번한 문학활동이 이루어졌다. 退溪 李滉(1501-1570)의 高弟인 서애의 시적 성향이 스승 퇴계의 시정신에 영향을 받아 유가적 시정신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애의 詩作에서는 公人으로서의 정치적 활약상뿐만 아니라, 朝市를 벗어난 山水自然의 탈속적 공간에 누정을 마련하여 강학을 하며 소박한 생활을 했던 학자의 모습과, 인간적 哀歡을 달래는 시인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서애가 제자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원지정사를 위시하여 자연 속에 자리한 교육의 공간,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된 누정에서 제작된 詩作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문학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서애의 시 인식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詩文學 創作을 하게 된 그의 심적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西厓의 詩 認識

서애가 『詩經』의 시들을 일상생활의 常道인 人倫을 바르게 일깨울 수 있는 재료로 여겼고 이를 통해 效用的 詩觀을 지니게 된 것은 『論語』에 나타나고 있는 孔子의 시관을 충실히 계승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시에서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하였고, 또,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하였고, 또, “시는 득실을 살필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으며, 멀리는 임금을 섬기고 가깝게는 아버이를 섬긴다.” 하였으니, 성인이 시의 교육을 중히 여김이 이와 같은데, 후세에 시를 배우는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 말류들은 음탕하고 요염하며 부박하고 화려한 말들을 만들어 사람의 이목을 현혹시켜

_____, 「서애 유선생 시교설 연구」, 『동방한문학』제10집, 1994.

서 바람이나 구름 달 이슬 같은 문구가 상자나 두루마리에 가득하지만, 시를 가르치는 본뜻은 더욱 캄캄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⁴⁾

애초에 공자가 시를 가르치고 이를 배우는 본뜻은 인간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유가의 學詩는 공자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였던 것이다. 위의 글을 보면 서에 또한 공자의 어록 가운데 시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발췌하여 요약하고자 이를 통해, 『詩經』을 배워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다음의 글에서는 유가적 시정신은 爲己之學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시공부에 있어서도 마음의 수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聖門의 학은 爲己 아닌 것이 없어서 밖에서 구하지 않는 것이니 자공이 빈부의 교훈에 의해 절차의 뜻을 얻은 것과, 자하가 巧笑倩盼의 시로 말미암아 禮가 忠信보다 뒤에 하는 것임을 안 것과, 성인이 시를 말함에 있어서 思無邪라는 한마디로 시 삼백편의 뜻을 나타내 버린 것은 모두 그 뜻이 원대한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시의 말들은 감발하고 흥기함이 한결같지 않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함이 다르지만, 자신에게 절실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⁵⁾

서애는 공자가 자공과 자하를 칭찬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시에 대해 말한 만하다고 한 사언을 근거로 삼아, 시를 배우는 궁극적 효과는 자

4) 『西匡集』, 「詩教說」. 孔子云 興於詩 又曰 不學詩無以言 又曰 詩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遠之事君 邇之事父 聖人之重詩教也如此 後世之學詩者果能然乎 其末流不過爲 佻艷浮靡之詞以眩人耳目 風雲月露雖盈箱滿軸 而詩教益晦 其故何耶.

5) 『西匡集』, 「詩教說」. 聖門之學 莫非爲己 不求於外 如子貢因貧富之訓 而得切磋之旨 子夏因巧笑倩盼之詩 而知禮之後於忠信 至於聖人言詩 則又以思無邪一言發三百篇之旨 其意遠矣 以此觀之 詩之言雖感興不一 善惡殊途 而莫非切於己也.

공과 자하의 경우와 같이, 自省으로 도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자공의 생각에는 가난해도 굶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을 지극한 경지로 알고 있었는데, 공자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예를 좋아하는 것이 더 지극한 경지라고 일러 주었다. 자공은 공자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詩經』의 “切磋琢磨” 시구를 들어 自省하게 된다.⁶⁾

또한, 자하는 공자에게 『시경』의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자가, “繪事가 後素이니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공자의 대답은 그림 그리는 일은 바탕을 회계 만드는 일보다 뒤에 하는 것임을 말한 것이어서, 아름다운 자질이 있는 연후에 꾸밈을 보태야 한다는 취지를 전하고 있다. 이때, 자하는 공자에게 “禮도 뒤에 합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이 말을 통해 그가 禮는 반드시 忠과 信으로서 바탕을 삼는 것임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을 그리는 일에 있어서 흰 바탕을 먼저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었다.⁷⁾ 이와 같이 자공은 공자와 “學”을 논하다가 시를 알았고, 자하의 경우, 시를 논하다가 “학”을 알게 된 것이다.

후세에 시에 깊이 들어간 이는 오직 정자인데, 그가 시에 대하여 한마디 해석도 내리지 않고 그 읊기를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득하게 하였다.

“저 일월을 보니 / 유유한 내 마음이로다.

길이 멀다고 하니 / 어찌 올 수 있으리오.’

이는 생각이 간절한 것이요,

‘모든 군자들은 / 덕행을 모르는가.

남을 해롭게도 안하고 욕심도 부리지 않는다면 / 어찌 착하지 않게 되겠는가.’

이는 바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니, 사물에 대하여 이름을 붙여서 해석

6) 『論語』卷之一, 「學而」 참조.

7) 『論語』卷之三, 「八佾」 참조.

하지 않아도 시의 본뜻이 이미 내 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읽는 자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손발이 춤추게 하니, 성인의 이른바 시에 흥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모든 경전에서 시를 인용한 것은 다 한 가지 뜻이다. 말이 다하였는데도 뜻이 다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곧 시로써 끝을 맺는데, 시가 한 구이거나 반 구에 불과한데도 완미하여 풀이해보면 의취가 무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은근히 기쁘게 하고 환하게 깨닫게 하여 사특한 마음과 나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씻은 듯이 없어지니 어찌 많은 말이 필요하겠는가?⁸⁾

위의 글은 程子の 견해를 예증한 것으로, 서애가 생각하는 유가적 시관을 보인 것이다. 즉, 孔孟과 같은 성인의 문장을 기록한 경전에서는 말이 다하였는데도 뜻이 다하지 못한 文句가 있으면 대체로 시를 인용하여 끝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럴 때 등장하는 시들은 비록 내용이 짧더라도 그 속에 깃든 의취만큼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유자에게 있어서 바른 심성을 흥기시키는 시어의 의미가 수많은 미사여구의 나열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됨을 보인 것이다. 이는 서애가 밝히고 있는 學詩의 정신이 의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심성수양을 위한 것임을 거듭 확인케 한다. 다음의 글에서는 의취가 무궁무진한 시는 아무나 제작할 수 없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시의 좋고 나쁜 것은 의취의 높고 낮음에 있으며, 말의 공교롭고 졸렬함에 있지 않다. 비유하면 큰 술의 국은 玄酒와 같아서 맛없는 가운데 지극한 맛을 보게 된다. 하나에 다섯 가지 맛이 있으면 입을 즐겁게

8) 『西匡集』, 「詩教說」. 後世深於詩者 惟程子觀其不下一訓誥 吟詠上下 使人自得 瞻彼日月 悠悠我思 遣之云遠 曷云能來 思之切也 百爾君子 不知德行 不伎不求 何用不臧 歸于正也 此不待名物解釋 而詩之本意 已躍如於前 使讀之者 不知手舞而足蹈 聖人所謂 興於詩者其是之謂也 因以是推之 凡經傳所引詩 皆一意 有言盡而意不盡者 輒以詩結之 不過一句半句 而玩而繹之 則意趣無窮 令人油然而樂 悅然而悟 邪心戾意 自不覺其消滌 安用多言哉.

하지 앓음이 없으나 마침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승할 뿐이다. 옛 사람들은 도연명과 위응물을 시의 대가로써 정종을 삼았다. 유자후 같은 이도 또한 충원하나 단지 이 시인은 지나치게 단련했을 다름이다.⁹⁾

서애는 유가적 시정신의 본질인 “의취”를 “맛없는 가운데 느껴지는 지극한 맛”에 비유하고 있다. 또, 의취는 시어의 공교로움과 단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고 본성을 수양한 사람이 터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결국 의취 높은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덕성을 갖추어 인격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위의 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古人들이 도연명과 위응물을 시의 대가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아왔던 이유를 말한 대목에 있다. 서애는 그 까닭에 대해 여느 시인들과 달리 이 두 시인의 시세계에는 의취의 높은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今朝郡齋冷	오늘 아침에는 관아마저 스산하여
忽念山中客	홀연 산에 있는 그대가 생각나네.
澗底東荊薪	석간수 밑에서 뿔나무를 묶고
歸來煮白石	돌아와 흰 돌을 삶고 있겠네.
遙持一盃酒	저 먼 곳으로 한 잔의 술을 들어
遠慰風雨夕	비바람 부는 저녁을 멀리서나마 위로하네.
落葉滿空山	낙엽이 빈산에 가득할 텐데
何處尋行迹 ¹⁰⁾	어느 곳에서 그대의 자취를 찾겠는가.

秋菊有佳色	가을날의 국화는 아름다운 자태가 있으니
裒露掇其英	이슬에 젖은 그 꽃을 따네.
汎此忘憂物	시름을 잊게 하는 이 술에 띄워

9) 『西厓集』, 「書亂後詩稿後」. 詩之好否 在意趣高下 不在辭之工拙 譬如大羹玄酒 寓至味於無味中 一下五味 非不悅口 終是偏者勝耳 古人以陶韋 爲詩家正宗 如子厚雖亦冲遠 只是鍛鍊太過耳.

10) 『詳說古文珍寶大全』, 「寄全椒山中道士」.

遠我遺世情	나는 世情을 멀리도 들어내어 버렸네.
一觴雖獨進	한 잔의 술을 홀로 마셔 나가지만
盃盡壺自傾	잔이 다하면 병을 스스로 기울이네.
日入羣動息	해가 드니 모든 움직이는 것이 쉬고
歸鳥趨林鳴	돌아가는 새는 숲을 쫓아 우네.
嘯傲東軒下	휘파람 불며 동창 아래에서 혼자 지내니
聊復得此生 ¹¹⁾	애오라지 다시금 眞生의 맛을 터득했더라.

위의 두 시는 각각 위응물과 도연명의 것으로 공히 산수자연을 소재로 한 超然하고 枯淡한 시세계를 이룩하고 있다. 즉, 위응물의 시에서는 隱士가 지향하는 脫俗의 의취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도연명의 시에서는 일없는 가운데에서 느끼는 生의 맛을 隱逸의 의취로써 형상화하고 있다. 서애 역시 江湖의 누정에서 제작한 詩作을 보면, 그들의 삶과 시를 존모하여 그들의 시에서 의상을 빌어 쓰기도 하였다. 특히, 서애는 <遠志精舍記>에서, 도연명이 없었다면 누가 자신과 취향을 함께 하겠는가 라고 탄식하였는데, 이는 서애의 소박한 생활과 俗氣가 제거된 淸澄한 시정신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

한편, 晩年의 그가 제작한 아래의 시문에서는 유가적 이상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온 그의 삶이 잘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서애는 자손들에게 遺誡하는 뜻을 忠孝의 의취에 담아 시화하였는데, 충효의 정신이야말로 그가 일생동안 견지한 聖學의 要諦인 것이다.

林間一鳥啼不息	숲 속의 한 마리 새 그치지 않고 우는데
門外丁丁聞伐木	문밖에서는 나무 베는 소리 정정하게 들린다.
一氣聚散亦偶然	한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도 우연일진데
只恨平生多愧作	다만 내 평생 부끄러운 일 많은 것을 한한다.
勉爾子孫須慎旃	권면하노니, 자손들아 모름지기 삼가라
忠孝之外無事業 ¹²⁾	충효밖에는 행할 사업이 없음.

11) 『陶淵明集』卷之三, 「飲酒二十首」 其八.

Ⅲ. 누정시의 시세계

누정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일련의 시작을 누정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대부를 위시한 누정시인들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세계를 이룩할 수 있는 누정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미적 체험을 형상화하였다. 따라서, 누정시의 문학성은 대체로 누정을 에워싼 경관 묘사에 집중된 것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의 품격이 그 의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서애의 詩觀은 누정시의 제작에 직접 구현된 바, 이는 단순한 경물묘사 보다는 경물을 통해 성찰적 인식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사실은 실경을 묘사하는 敍景은 하지 않고 대상의 내재적 의미를 확인하거나 드러낸 누정시가 많았던 스승 퇴계의 시작과도 상통하고 있다.¹³⁾ 다시 말하면 누정 주변의 경물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산수자연은 遊賞의 대상으로써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과 자연경관이 그렇게 있는 이유 즉 내재하는 理를 찾아내는데 필요로 하는 관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서애는 단지 그 흥취를 읊조리기 보다는 實景 속에 담겨진 불변의 이치를 인식하고 이를 형상화한 것이다.

서애의 누정시에서는 산수자연에 대한 흥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산수자연을 통해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시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서애시의 行間에서 찾을 수 있는 의취의 본질을 1)忠臣의 憂國 意志 2)人生에의 達觀과 枯淡한 詩境 3)삶의 實存的 認識과 孤獨境이라는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忠臣의 憂國 意志

12) 『西厓集』, 「寄諸兒」.

13) 李貞和, 『退溪 李滉의 詩文學 研究』, 보고사, 2003, 75쪽.

주지하다시피, 서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이순신, 권율 등의 명장을 천거하여 累卵之危에 임박한 國運을 회복케 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 서어의 충성된 마음은 戰時를 당하여, 국가의 安寧을 위해 勞心焦思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戰場에서 받은 心傷을 시화하게 된다.

落月微微下遠村 寒鴉飛盡秋江碧	지는 달 아스라이 저 먼 마을로 내려가고 차근한 까마귀들도 날아가고 없으니 가을 강만 푸르네.
樓中宿客不成眠 一夜霜風聞落木	누대에서 묵은 나는 잠 못 이룬 채 온 밤을 서릿발 치는 바람 속에 나뭇잎 지는 소 리만 듣네.
二年飄泊干戈際 萬計悠悠頭雪白 衰淚無端數行下 起向危欄瞻北極 ¹⁴⁾	이 년째 전장을 돌아다니는 사이에 온갖 계책 장구하여 머리만 희어졌네. 老軀에서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리는데 높은 난간에 서서 북극을 바라보네.

이 시에서는 시인이 서릿바람 부는 누각 위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정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화급을 다투는 戰時의 긴박감 속에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자신의 심정을 “萬計悠悠頭雪白”이라 표현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처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책임은 하는 일 없이 나이만 먹은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尾聯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임금을 향해 눈물 흘리는 신하의 충성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시에서는 위의 시와 마찬가지로 戰場에서 읊은 것이지만, 노환이 심해짐에 따라 작가의 우환의식도 더욱 강렬해졌으며 이에 삶을 종결짓는 순간인 죽음을 생각하고는 탄식하고 있다.

客子登臨情浩浩 나그네가 누각에 올랐더니 마음까지 넓어지는데

14) 『西厓集』, 「宿清風寒碧樓」.

高歌一聲山石裂	소리 높여 한번 읊조리니 산위의 바위마저 쪼개 어지네.
長風吹上東峯月	거센 바람 불더니 동봉 위에는 달이 올라오고
萬里天容一樣碧	수만리에 펼쳐진 하늘은 한껏 푸르르네.
我生於世眞悠悠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은 진정 길기도 하여
北去南來成白髮	북남을 오가며 어느덧 백발이 되었네.
風塵天地老病催	전장의 티끌 속에서 노환마저 닥쳐오는데
宇宙歸來空嘆息 ¹⁵⁾	우주의 이법대로 돌아가게 될 이 몸을 공연히 탄 식하네.

이 시는 首聯에서 “客子登臨情浩浩 高歌一聲山石裂(나그네가 누각에 오르니 마음이 넓어져서 소리 높여 한번 읊조리니 산위의 바위마저 쪼개어지네)”이라 하여 戰場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은 씩씩하고 굳센 기상을 나타내었고, 頷聯의 “長風吹上東峯月 萬里天容一樣碧(거센 바람 불더니 동봉 위에는 달이 올라오고 수만리에 펼쳐진 하늘은 한껏 푸르르네)”을 통해, 그가 一世之雄의 기상을 함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자연의 偉容에서 말미암은 것임을 보이고 있다.

頸聯과 尾聯에 이르러, 노쇠해지는 자신의 육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이법에 따라 스러져갈 것을 생각하며 산수자연과 대비되는 유한한 인생에 대해 詩心을 일으키고 있다. 老軀가 되어 점차 육체의 한계를 체감하게 되자, 일생토록 수양해야 할 유가의 강인한 기상도 이와 더불어 쇠락하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다.

작가의 우뚝한 기상은 왜적의 邪氣가 민족정기를 결코 훼손할 수 없음을 암시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나라를 생각하는 그의 우국정신을 다시금 헤아릴 수 있게 한다. 위의 시에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주변경관은 단지 시인의 의취를 가다듬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15) 『西厓集』, 「宿娑娑城 登襟江樓」.

高樓縹緲上雲梯	백상루 아득히 높아 구름 사다리 오르는 듯
倚遍危欄日欲低	높은 난간에 기대니 해는 서산으로 지려 하네.
山勢直窮遼塞外	산세는 곧장 변방 너머로 뻗어가고
江流不斷海門西	강물은 끊임없이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네
晴川芳草詩情動	비 갠 시냇가 파릇한 풀에 시심이 동하고
孤鶩殘霞客思迷	지는 노을 아래 외로운 새는 나그네 마음을 혼드네.
關路正長王事急	변방은 정히 멀고 국정이 급함을 아는지
驛亭疏柳馬頻嘶 ¹⁶⁾	역참의 버드나무에 매어놓은 말은 울기만 하네.

그는 백상루에 올라가서 목적지인 衛戍地(수자리 근무를 집행하는 일정한 地區)를 향해 아득히 바라보며 憂國 意志를 북돋우고 있다. 頸聯을 통해, 그는 關西지방의 勝景地에 서서 목도하게 된 故國山川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詩心을 일으켰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의 핵심은 尾聯에서 변방으로 함께 떠나게 될 주인을 에타게 기다리는 말의 울음소리가 驛站에서 들려온다고 묘사한 것에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위의 시는 山紫水明한 疆土이기에 더욱 더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절감한 데서 우리나라의 시라 하겠다.

上流形勝此中探	상류의 경치를 이 곳에서 찾았으니
山擁金城水繞藍	산은 금성으로 에워싸고 물은 쪽빛으로 둘러싸였네.
興廢有時雙淚眼	흥폐는 때가 있어 두 줄기 눈물 흘리는데
關津無賴一茅庵	관문 나루에는 의지할 바 없는 암자 하나 있네.
還憐銳卒空輸萬	가련하구나, 군사들 헛되이 만 명이나 보내고
坐使雄都盡失三	앉아서 큰 도읍지 세 곳이나 잃어버렸네.
廊廟數年無寸效	조정에서 수년을 공훈도 없이 지내니
倚風料理只心慚 ¹⁷⁾	바람에 의지해 요량하여도 마음만 참담할 따름이네.

16) 『西厓集』, 「陪使相 登百祥樓少憩 發向嘉山」.

17) 『西厓集』, 「過彈琴臺有感 次朴昌世先生韻」.

이 시에서 그는 스스로를 不忠한 신하로 여겨 전쟁에서의 패배를 事前에 誠忠으로 막지 못한 자신의 罪狀을 밝히고 있다. 특히 尾聯의 “廊廟數年無寸效 倚風料理只心慚(조정에서 수년을 공훈도 없이 지내니 바람에 의지해 요량하여도 마음만 참담할 따름이구나)”에 이르러, 국가의 重任을 맡은 자신이 蜀漢의 재상이었던 諸葛亮처럼 뛰어난 지략과 충의로 國運을 復興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遺恨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는 기울어지는 국운을 일으키기 위해 孤軍奮鬪하여 보았지만, 이러한 보람도 없이 국력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國祿之臣으로써 國利民福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해하고 있다.

이 시에서, 勝景地인 탄금대는 시의 배경이 되고 있으나, 시인의 우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장소로서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2. 人生에의 達觀과 枯淡한 詩境

서애는 퇴계의 4대 高弟라 칭할 정도로, 스승의 학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진력한 학자였다. 특히, 환로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懲愆錄』과 같이 世人에게 삶의 規戒가 되어 온 글을 저술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는가 하면, 정운목을 비롯한 후학들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

서애가 이룩한 학자적 삶은 清白吏의 정신을 몸소 행하는 생활에서도 그 結實을 남기었다. 실제로 자체들을 제대로 뒷바라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궁핍하게 생활한 적이 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의 시에서는 부귀영화를 꿈꾸는 인간의 욕망이 虛想이라는 것을 직시함으로써 淸廉한 삶과 枯淡한 시정신을 표출하게 된다.

貧賤人所厭	가난하고 천한 것은 사람이 싫어하는 바요
富貴人所求	부유하고 귀한 것은 사람이 구하는 바이네.
悲歡與得喪	슬프고 기쁜 것과, 얻고 잃는 것에 연연하니
擾擾不知休	요란하여 그칠 줄을 모르네.

人生在世間 사람의 일생은 이 세상에 있어서
 大海一浮漚 큰 바다에 한 점 물거품 같은 것.
 百年能幾何 백년이라 해봐야 얼마나 되나
 萬事眞悠悠 만사는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구나.
 居然了塵妄 잠자코 앉아 잡념을 잊고
 一笑倚西樓 서루에 기대어 한번 웃어보네.
 西樓雖一間 서루는 비록 한 칸이지만
 亦足容吾膝 족히 내 무릎을 펼 수 있네.
 上有一爐香 위에는 향로가 하나 있고
 殘書數三帙 남은 책이 두세 질 되네.
 平吞遠山影 바로 서면 먼 산 그림자 삼킬 듯하고
 俯挹澄江色 숙이면 맑은 강물이 잡힐 듯하네.
 主人信貧窶 주인은 참으로 가난하여
 三旬九遇食 한 달에 아홉 끼니 먹네.
 獨愛北窓下 유독 아끼는 것은, 북창 아래
 淸風滿枕席¹⁸⁾ 침석에 가득 맑은 바람 맞이하는 것이네.

이 시는 俗氣가 제거된 儒者가 자연 속에서 閑寂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보이고 있다. 서애의 산수생활에 나타난 내면세계는 顏回¹⁹⁾의 그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論語』에 보이는 공자의 즐거움에 부합하고 있다. 공자는 군자야말로 걱정이 없는 사람²⁰⁾이라 하였고,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굽혀 베개 삼고 있어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다²¹⁾고 하였으며, 가난 속에서도 즐거운 삶²²⁾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특

18) 『西厓集』, 「題西樓」.

19) 『論語』卷之六, 「雍也」. 子曰 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回也.

20) 『論語』卷之十二, 「顏淵」. 司馬牛問君子 子曰 君子不憂不懼.

21) 『論語』卷之七, 「述而」. 子曰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22) 『論語』卷之一, 「學而」.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

히, 안회에 대해서는 그가 簞瓢陋巷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가난”에 마음이 얽매어 자신이 즐거워하는 바를 바꾸지 않았던 점을 들어 칭찬하였다.²³⁾

한편, 이 시에 나타난 서애의 마음은 세속을 초연한 陶淵明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 위에서 “西樓雖一間 亦足容吾膝(서루는 비록 한 칸이지만 족히 내 무릎을 펼 수 있네.)”이라 한 것은 「陶淵明寫眞圖」에서의, “廟堂之姿老蓬華 環堵蕭條僅容膝(조정에서 큰 벼슬할 풍채로 초라한 초가에서 늙으니 흙벽 두른 집안은 썰렁한데 가까스로 무릎을 펼 수 있네)”과 그 의상이 상통하고 있다.

“主人信貧窶 三旬九遇食 獨愛北窓下 清風滿枕席(주인은 참으로 가난하여 한 달에 아홉 끼니 먹네. 유독 아끼는 것은, 북창 아래 침석에 가득 맑은 바람 맞이하는 것이네.)”이라고 한 것은 도연명이 「擬古」시에서 “東方有一士 被服常不完 三旬九遇食 十年著一冠 辛苦無此比 常有好容顏(동방에 한 선비가 있으니 입은 옷은 항상 남루하였다. 한 달에 아홉 끼니가 고작이고 십년을 관 하나로 지내었다. 고생스러움 이에 짝이 없으려만 언제나 기분 좋은 얼굴이더라.)”이라 한 것에서 그 의상을 따온 것이다.

이 시에서는 우주를 큰 바다에 비유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인생을 한 점 물거품으로 묘사하여, 부귀에 매달려 과욕으로 인한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가난한 처지에서도 본심을 잃지 않는 安分知足의 삶이 더 낫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淵明有三徑	도연명에게 삼경이 있어
猶自託於文	스스로 글을 지었네.
況我諸般弄	하물며 나에게는 여러 화훼가 있어

而樂 富而好禮者也.

23) 『論語』卷之六, 「雍也」. 程子曰 顏子之樂 非樂簞瓢陋巷也 不以貧窶累其心 而改其所樂也 故夫子稱其賢.

同時滿一園	일시에 온 정원에 만발하였네.
簷前雙玉立	처마 앞에는 두 줄기 옥이 섰고
牆下四桃昏	담 아래에는 도화 네 그루가 우거졌네.
西畦種枸杞	서으로 밭두둑에는 구기자를 심었고
北庭移梨根	북으로 뜰에는 이화 묘목을 옮겼네.
山茶與海棠	산차와 해당화가
并芳若弟昆	형제같이 어울려 향기를 내네.
芍藥短叢條	작약은 무성한 가지들이 짧으니
比附爲兒孫	어린 손자에 비유할 만하네.
薔薇正顏色	장미는 안색이 반듯하고
黃花耀籬藩	국화는 울타리를 빛내주네.
格柘不事文	산상은 꾸밈을 일삼지 않으나
實多令人吞	열매가 많아 사람들을 먹여주네.
葵誠最可愛	해바라기는 가장 아낄 만하니
白日傾天門	한낮에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네.
更有蒼髯公	또 푸른 솔도 있으니
直氣何軒軒	곧은 기상은 어찌 그리 험험장부인가
根藏萬丈勢	뿌리는 만 길의 위세를 숨긴 채
意欲撐乾坤	의지로 하늘과 땅을 지탱하고 있구나.
主人信貧窶	주인은 진실로 가난하여
三旬或九餐	한 달에 아홉 번 먹네.
閉門日相對	문 걸고 날마다 마주하는 것은
羅列陳楹軒	늘어선 난간의 기둥들이네.
生涯亦繁華	삶 또한 번거로우니
富貴與浮雲 ²⁴⁾	부귀는 뜬 구름 같다네.

이 시에서는 그가 원지정사 주위에서 돌보는 草木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아끼는 것을 해바라기라고 고백하였는데, 그의 마음은 언제나 임금을 생각하고 있어서 애국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이는 변함없는 애국심을 견지했던 스승 퇴계의 의상

24) 『西厓集』, 「遠志精舍記花」.

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²⁵⁾

또, 대장부가 갖추어야 할 의기는 깊은 뿌리를 감춘 소나무의 굳센 偉容에 견주고 있다. 그가 “根藏萬丈勢(뿌리는 만 길의 위세를 숨긴 채)”라고 하여 밖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소나무의 ‘뿌리’를 강조한 까닭은 儒者들이라면 마땅히 聖學을 통해 이룩해야 하는 根基의 깊이를 형상화함으로써 유가적 시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시도 역시 「題西樓」시와 마찬가지로 서애의 산수생활이 바로 자연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는 安貧樂道의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淵明有三徑 猶自託於文(도연명에게 삼경이 있어 스스로 글을 지었네.)”이라 한 것은 이 시의 연원이 도연명이 지은 「歸去來辭」의 “三徑就荒 松菊猶存(정원의 세 갈래 작은 길엔 풀이 우거졌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여전히 곳곳하다.)”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정원의 세 갈래 작은 길”이 원래부터 松徑, 竹徑, 菊徑이므로 隱士가 거처하는 곳을 일컬은 말이었는데, 도연명이 자신의 거처를 비유하기 위해 끌어 쓴 것이다.

또한, “主人信貧窶 三旬或九餐(주인은 진실로 가난하여 한 달에 아홉 번 먹네.)”을 통해, 서애시의 의상이 도연명의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三旬九食하며 부귀영화를 뜬 구름처럼 여기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거듭 시화하고 있다. 이는 산수에서 講學하며 淸閑한 여생을 보내기를 회구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사료된다.

大道難從口耳傳	대도는 입이나 귀로써 전해지기 어려우니
此心隨處自悠然	이 마음 갖든 곳을 따라 저절로 유연해지네.
靜觀軒外千條柳	정관헌 주위의 천 갈래 버들 가닥
春入絲絲不後先 ²⁶⁾	실실이 先後 없이 봄빛으로 물들었네.

25) 李貞和, 『退溪 李滉의 詩文學 研究』, 보고사, 2003, 233쪽.

26) 『西厓集』, 「靜觀齋春日有感 戊辰」.

서애의 學德은 퇴계의 心學에 대해 主敬窮理하고 精思實踐하여 쌓인 것으로 다른 유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왔다. 서애는 「獨寢不愧衾銘(혼자 자도 이불에 부끄럽지 않은 명)」에서, ‘위대한 진서산 선생은 학문에 힘쓰는 지극히 깊었다. 일깨워주는 그 한 말씀이 후학들의 산 교훈이 되었다. 덕을 닦으면 날로 훌륭해지지만 진실하지 못하면 날로 옹졸해진다. 성인과 광인을 구분할 때,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길이 갈라지는 것이다.’²⁷⁾라 하였는데, 이를 통해 『心經』으로 研學하였던 퇴계와 그의 학문을 계승한 高弟 서애의 학문정신을 알 수 있다. 유자들이 心學에 몰두하는 것은 바로 유가에서 추구하는 도의 본체는 자기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는 유가의 大道는 유자 자신이 성학을 통해 수양하여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他人이 대신 체득해 줄 수는 없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따라서, 서애는 3, 4구를 통해 정관현을 둘러싸고 있는 버드나무를 관조하면서 이를 통해 체득된 도의 본체를 物心一如의 경지로써 표출하고 있다.

千古義文學 천고에 『주역』의 이치
 三年燕坐心 삼년을 앉아서 공부하네.
 意中蒼壁立 내 마음 속으로 푸른 벽이 섰는데
 吟外暮江深²⁸⁾ 음미하는 옆엔 해 저문 강물이 깊네.

공자는 『周易』을 배우게 되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²⁹⁾ 이는 곧 『주역』을 공부하면 吉凶과 消長의 이치에 밝아지고 進退와 存亡의 도에 밝아지기 때문에 큰 허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

27) 『西厓集』, 「獨寢不愧衾銘」. 卓哉西山 用力深至 一言警策 以迪來裔 作德日休 作僞日拙 聖狂之別 由此異轍.

28) 『西厓集』, 「燕坐樓秋思」.

29) 『論語』卷之七, 「述而」.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

다.³⁰⁾ 공자는 『주역』에 담긴 이치의 無窮함을 깊이 헤아렸던 까닭에 이러한 말로 다른 사람을 교화한 것이다.³¹⁾ 하지만 공자는 『論語』에서 궁극적으로 『주역』은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학문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거기에 담긴 이치는 쉽게 배워지지도 않는 것임을 일깨웠다.³²⁾

위의 시는 易道の 무궁한 이치를 배우기 위해 삼년동안 潛心한 서애의 학구열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주역』을 독파하며 쌓아올린 자신의 내면세계의 높이를 ‘蒼壁’으로 형상화하였다. ‘蒼壁’으로 형상화된 정신 세계는 目前의 외부세계를 초연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강물의 깊이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는 주역의 이치 역시 이 水深과 같이 심오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시는 자기 속에 내재하는 理를 통해서 자연의 理를 바라본 퇴계의 시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삶의 實存的 認識과 孤獨境

「연보」에 의하면, 서애는 21세에 처음으로 퇴계 문하에서 수학할 때부터, 이미 스승에게서 “하늘이 내려준 인재”라고 칭찬받았다. 이 시기는 젊은 시절의 서애가 오로지 性理에 대한 학문에 전념한 기간이었는데, 스승 퇴계는 그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제자가 장차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타고난 자질과 총명을 지닌 서애는 차후에 영의정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빼어난 식견을 발휘하여 국익을 도모할 수 있었다.

누정시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관료로서의 자긍심은 보이지

30) 『論語』卷之七, 「述而」. 學易則明乎吉凶消長之理 進退存亡之道 故可以無大過.

31) 『論語』卷之七, 「述而」. 蓋聖人深見 易道之無窮 而言此以教人.

32) 『論語』卷之七, 「述而」. 使知其不可不學 而又不可以易而學也.

않을 뿐 아니라, 비극적 인생관을 표출하는 시인 그 자체다. 다시 말하면, 그도 역시 머지않아 우주 속으로 사라지게 될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등 자아에 대한 실존적 인식에서 야기된 고독을 시화하고 있다. 人豪(器량이 뛰어난 人士)인 서애에 의해 표출된 孤獨境이 누정시의 의취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山形背立本同根 산의 형세 마주섰어도 원래 같은 줄기이고
 江水分流亦一源 강물이 나뉘어 흘러도 역시 근원은 동일하네.
 花石古亭人不見 화석정에는 옛 정자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
 夕陽歸去重消魂³³⁾ 석양에 돌아가며 다시금 마음마저 녹아드네.

화석정은 과주시 문산읍의 임진강변에 자리한 것으로 栗谷家의 정자인데, 율곡의 누정시가 편액으로 걸려 있는 등 일찍이 율곡의 학문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온 곳이다.

위의 시를 보면, 조정에서의 派黨 대립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생애에서 辛苦를 겪고 있는 서애의 마음이 形勝之地인 화석정의 주변경관을 조망하는 가운데 봄눈 녹듯 物我一體의 심경을 이루게 된다. 즉, 1, 2구를 통해 단순한 자연경관을 읊조린 것이 아니라 서애와 율곡의 학문적 지향이 공자의 성학을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보면 기호학과와 영남학파의 학문정신 또한 同軌의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이 시는 3구에 이르러 白居易 시를 전고로 끌어와서 자신의 孤獨境을 倍加시킨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백거이는 「商山路有感」에서, “萬里路長在 六年今始歸 所經多舊館 太半主人非(만리길에 오래 있더니 육년 만에 이제사 돌아간다. 지나가는 곳은 옛 亭館이 많으나 태반이나 옛 주인이 아니더라.)”라고 하여, 人生無常에 대한 비애감과 그로 인한 고독한 심경을 시화하였다. 즉, 그는 전날에 들렀던 商山길 위의 정자들을 육년 만에 다시금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주인 가운데

33) 『西厓集』, 「題花石亭 栗谷亭名」.

대부분은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이로 인해 이미 타계한 그곳 주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자신의 유한한 인생임을 확 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서애시에 나타나는 인생무상과 孤獨境은 知天命의 年齒를 앞두고 서애보다 먼저 별세한 율곡에 대한 추모의 정감에서 우리나라의 것임을 알 수 있다.

危臺高出白雲端 높은 누대 우뚝 솟아 흰 구름 가에 걸리었고
松桂蒼蒼水石間 소나무, 계수나무는 물가 바위 틈에서 우거졌네.
有客獨來還獨去 나그네 되어 홀로 왔다 도로 가는데
風吹暮雨滿空山³⁴⁾ 저녁 비 부추기는 바람만 빈산에 가득하네.

洗心臺에 오른 시인은 누대 주변 경관이 白雲과 松桂가 조화를 이룬 形勝之地임을 시화하였는데, 이 시의 1, 2구는 도연명의 「擬古」시 중에서, “靑松夾路生 白雲宿簷端(푸른 소나무는 길을 끼고 우거졌고 흰 구름은 처마 끝에 걸려 있구나.)”의 의상과 상통하고 있다. 한적한 산수 야말로 淸高不俗의 벗이 될 수 있어서, 속세에의 때 묻은 마음을 씻어 버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3구에서, 세속과 절연한 이 장소에 속인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있는 그의 모습은 고독경 그 자체이며 자기 응시이다. 자기응시는 도덕적인 반성이나 성찰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³⁵⁾

서애는 「主宰說」에서, “주재의 두 글자는 곧 내 몸을 다스리고 본성을 함양하는 묘한 방법이다. <...> 대저 사람의 몸이란 하나의 혈육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눈이 밝게 볼 수 있는 것과, 귀가 잘 들을 수 있는 것과, 입이 맛을 잘 분별하는 것, 사지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 등에 있어, 이에 주인이 되는 것은 마음일 따름이다. 『中庸』에 이르기를 中和를 이루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진다 하였으니,

34) 『西厓集』, 「遊洗心臺遇雨」.

35) 斯波六郎(윤수영 역), 『中國文學속의 孤獨感』, 동문선, 1992, 17쪽.

中이란 主이며 和란 宰이다.”³⁶⁾라고 한 바 있다.

이로써 보면, 서애는 일상생활에 임할 때에 늘 성찰적 태도를 자신의 마음을 주재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4구는 慎獨에 의한 理智的인 자기응시에서 비롯된 경계를 표출하고 있다. 즉, 그의 시에 나타나는 ‘空山’의 의취는 신독으로 주재하고 있는 내면세계에의 자기응시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4구의 의상은 위응물이 지은 <寄全椒山中道士>에서 그 의상을 따온 것으로, 山中客의 쓸쓸한 심경을 비바람 부는 빈산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人生好醜何曾定 인생의 좋고 나쁨이 어찌 날 때부터 정하여 졌으
 리오마는
 世上榮枯不足言 세상의 영고성쇠는 족히 말로도 설명이 안 되네.
 雨後一聲山鳥喚 비 개인 뒤 산새들이 한바탕 지저귀더니
 梅花初動水南村³⁷⁾ 매화꽃잎들은 남촌으로 떠나가네.

이 시에서 표백된 시인의 쓸쓸한 심사는 곧 인간이면 겪어야 하는 흥망성쇠가 하늘의 뜻이어서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표출된 것이다. 3, 4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생의 宿命을 절감하게 된 연유는 비온 뒤에 凋落하는 꽃잎을 목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花無十日紅의 이치를 확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도연명과 흡사하다. 즉, 이 시는 도연명이 지은 「擬古」시의, “皎皎雲間月 灼灼葉中華 其無一時好 不久當如何(구름 사이의 달은 밝기도 한데 꽃잎 사이의 봉오리들은 온통 곱기도 곱네. 한때의 아름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가지 못하니 이를 어찌하리.)”와 그 의상이 맞

36) 『西厓集』, 「主宰說」. 主宰二字 乃治身養性之妙法 <...> 蓋人身只是一箇血肉 然目之於視也明 耳之於聽也聰 口之於味也辨 四肢之動也捷 於此有主焉 心而已 中庸曰 致中和 天地位萬物育 中者主也 和者宰也.

37) 『西厓集』, 「早春自遠志精舍步出江沙偶得」.

닿아 있다. 즉, 인간의 宿命도 지는 꽃잎 같이 一時의 盛時만이 있음을 일깨운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상이 상통하고 있다.

이 시는 원지정사를 배경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다. 서애는 일찍이 <遠志精舍記>에서, “도연명의 시에, ‘마음이 세속과 멀리하니 사는 것이 절로 한가롭다.’라 하였다. 이 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취향을 함께 할 수 있으리요. 이로 인하여 기문을 짓는다.”라고 하였으니, 도연명의 山林高義를 존모한 서애의 시정신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V. 맺는 말

지금까지 본론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정시의 제작에 있어서 그 정신적 토대가 된 서애의 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애는 孔子의 시관에 입각하여 詩作에 있어서도 效用的 詩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詩敎說」을 지어 유가적 시정신은 爲己之學과 상통하는 것이며 시공부에 있어서도 마음의 수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서애는 『詩經』의 시를 체득한 聖賢의 실례로써 程子の 유가적 詩觀을 들어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가 하면, 유가적 시정신이 갖든 의취의 본질을 “맛없는 가운데 느껴지는 지극한 맛”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서애는 古人들이 도연명과 위응물을 시의 대가 중에서 으뜸으로 손꼽아 왔던 이유에 대해 여느 시인들과 달리 이 두 시인의 시세계에는 의취의 높은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여, 자신의 시적 성향은 공교로운 시어의 구사를 지양하고 유가적 시정신을 격조 높은 의취로써 표출하는 것임을 보였다.

서애 역시 江湖의 누정에서 제작한 詩作을 보면, 그들의 삶과 시를 존모하여 그들의 시에서 의상을 빌어 쓰며, 자신의 빈궁한 생활이 그

들이 이룩한 바와 같은 淸澄한 시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위무하였다. 한편, 그가 후손에게 내린 遺誡를 통해, 일생동안 견지한 聖學의 要諦가 바로 忠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충효에의 衷心은 전연한 淸澄한 시정신과 더불어 그의 시를 의취의 높은 곳에 다다르게 하고 있다.

둘째, 서애의 누정시는 산수자연에 대한 흥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산수자연을 통해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의 누정시에서는 忠臣의 우국 의지가 표출되어 있다. 서애의 衷心은 戰時를 당하여, 국가의 安寧을 위해 勞心焦思하는 모습으로 표출되었고, 戰場에서 받은 心傷을 시로써 나타내기도 하였다. 「宿淸風寒碧樓」시에서는 임금을 향해 눈물 흘리는 신하의 충성심을 담았다. 「宿婆娑城 登襟江樓」시에 나타난 우뚝한 기상은 왜적의 邪氣가 민족정기를 결코 훼손할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며, 이를 통해 나라를 생각하는 서애의 우국정신을 다시금 헤아릴 수 있다. 위의 시에서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주변경관은 단지 시인의 그러한 의취를 가다듬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過彈琴臺有感 次朴昌世先生韻」에서, 시의 배경으로 자리한 승경지 탄금대도 역시 시인의 우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장소로서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陪使相 登百祥樓少憩 發向嘉山」은 山紫水明한 疆土이기에 더욱 더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절감한 데서 우리나라 시이다.

그리고, 그의 누정시는 인생에의 達觀과 枯淡한 詩境을 표출하고 있다. 그의 시는 부귀영화를 꿈꾸는 인간의 욕망이 虛想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가운데 淸廉한 삶과 枯淡한 시정신을 형상화하였다. 「題西樓」시에 나타난 서애의 마음은 세속을 초연한 陶淵明의 그것과 맞닿아 있다. 三旬九食하는 빈궁한 삶 가운데서도, 부귀에 매달려 과욕으로 인한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가난한 처지에서 본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安分知足의 삶이 더 낫다는 것을 되새기고 있다. 「遠志精舍記花」시 역시

도연명의 「歸去來辭」를 전고로 한 것이며 서애의 산수생활이 바로 자연친화적인 삶을 지향하는 安貧樂道의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靜觀齋春日有感」시에서는 정관헌을 둘러싸고 있는 버드나무를 관조하면서 이를 통해 체득된 도의 본체를 物心一如의 경지로써 표출하였다. 이밖에도, 「燕坐樓秋思」는 “蒼壁”으로 형상화된 그의 내면세계가 目前的 외부세계의 깊은 강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주역의 이치 역시 이 水深과 같이 심오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자기 속에 내재하는 理를 통해서 자연의 理를 바라본 퇴계의 시정신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서애의 누정시는 삶의 實存的 認識과 孤獨境을 담고 있다. 그는 자신도 역시 머지않아 우주 속으로 사라지게 될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등 자아에 대한 실존적 인식에서 야기된 고독을 시화하였다. 「題花石亭」시에서는 단순한 자연경관을 읊조린 것이 아니었다. 즉, 서애와 율곡의 학문적 지향이 孔子의 聖學을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보면 기호학과와 영남학파의 학문정신 또한 同軌의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 시이다. 이 시에서 서애는 白居易 시를 전고로 끌어와서 知天命의 年齒를 앞두고 타계한 율곡을 추모하였다. 또, 「遊洗心臺遇雨」시의 1, 2구는 도연명이 지은 「擬古」시의 의상과 상통하는 바, 이는 한적한 산수야말로 清高不俗의 벗이 될 수 있어서, 속세에의 때 묻은 마음을 씻어버릴 수 있음은 나타낸 것이다. 이 시의 3, 4구는 위응물의 「寄全椒山中道士」에서 그 의상을 따온 것으로, 山中客의 쓸쓸한 심경을 비바람 부는 빈산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早春自遠志精舍步出江沙偶得」시는 인간이 꺾어야 하는 흥망성쇠가 하늘의 뜻이어서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쓸쓸한 심사를 표출하였다. 이 시도 역시 도연명의 시정신과 그 의상이 상통하는데, 인간의 宿命도 지는 꽃잎 같이 一時의 盛時만이 있음을 일깨운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서애는 일찍이 「遠志精舍記」에서, “도연명의 시에, ‘마음이 세속과 멀리하니 사는 것이 절로 한가롭다.’라 하였다. 이 분이 아니었

다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취향을 함께 할 수 있으리오. 이로 인하여 기문을 짓는다.”라고 하였으니, 도연명의 山林高義를 존모한 서애의 시 정신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憂國(patriotism), 忠臣(loyalty), 達觀(far-sighted view), 枯淡(purity), 實存(existence), 孤獨(solitude)

참고문헌

- 『論語』,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1.
 『(詳說)古文珍寶大全』, 보경문화사, 1986.
 『陶淵明集』, 里仁書局, 1980.
 『西厓全書』, 서애선생기념사업회, 1992.
 『국역 서애집』, 민족문화추진회, 1977.
 강성준,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시황, 「서애 유선생 시교설 연구」, 『동방한문학』제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_____, 「서애 유성룡의 문학세계」,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斯波六郎(尹壽榮 譯), 『中國文學속의 孤獨感』, 동문선, 1992.
 이정화, 『퇴계 이황의 시문학 연구』, 보고서, 2003.
 조민경,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한종만, 「韓國 清白吏像 研究」, 『원광대 논문집』11, 원광대, 1977.

<Abstract>

A Study on the arbor poetry of Seoae Ryu Seong-ryong

Lee, Jeong-Hwa

This paper is an attempt to illustrate the poetic spirit of Seoae Ryu Seong-ryo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lement of the understanding of the spirit of his poems by adding the study on Chinese Poems of Toegye of his Scholastic lineage in Yi Dynasty.

Seoae Ryu Seong-ryong had produced in verses under given title at the towered mansion and arbour. He had focused on 'patriotism and loyalty', 'far-sighted view and purity', 'existence and solitude' by including constant human nature in text. According to the arbor poetry of Seoae Ryu Seong-ryong, he was thought to be the important character : as a scholar, as a hermit and as a loyal subject. His spirit of the poems connected the poetic spirit of Do Yeon-myung. The Chinese Poems written by Seoae Ryu Seong-ryong was tried to realized in the Confucian ideology.

이정화
숙명여대 인문학부 강사
전화: 011-750-1268
e-mail: jeonghwa@sookmyung.ac.kr

이 논문은	2006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6월	30일	간행함